

# 후 대 중 시 , 미 래 사 랑 의 숭 고 한 화 폭

＊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남조선출신의 한 유가족에게 배풀어주신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 ＊

후대중시, 미래사랑은 인간의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감정이며 미덕이다.

백두산3대장군들은 그 고귀한 사상감정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최상의 높이에서 실천하신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화신이시였다.

## 장군님의 품에 안겨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65년전인 주제 38(1949)년 봄 어느날이었다. 삼태성도 이미 기울었건만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계시는 집무실에는 불빛이 꺼질줄 몰랐다.

밤이 깊도록 해당 일군들에게 새 민주조선건설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수령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시어 창밖을 내다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눈앞에는 남조선에 세 자식을 둔 한 일군이 떠올랐다.

그가 바로 사법성 부상이였던 리종갑선생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를 아시게 된것은 1946년이었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주제35(1946)년 3월 《무허가학교 폐쇄령》이라는것을 공포하고 전국적경향이 강한 서울법정학교와 수많은 사립학교들을 폐쇄한데 이어 8월 22일에는 남조선에서 교육을 철저히 식민지예속화할 목적으로 《군정법령》제102호(《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 관한 법령》)를 공포하였다.

근본한 교원들과 학생들은 《〈국대안〉을 반대한다!》, 《학원을 민주화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가두시위를 벌였다.

이 투쟁의 앞장에는 당시 서울법정학교 교원이였던 리종갑선생이 서있었다.

청년학생들과 대중의 투쟁에 의하여 미제는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 관한 법령》의 내용을 일부 뜯어고쳤지만 수많은 사립학교들을 강제적으로 폐쇄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그로 하여 서울법정학교에서만 도 500여명의 학생들이 배움의 길을 잃게 되였다.

리종갑선생을 비롯한 서울법정학교 교원들과 학생들은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 실례를 보고드리고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 교원, 학생대표들을 평양에 파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민주조선건설사업을 평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사선을 헤쳐온 그들을 만나주시였다.

그들로부터 리종갑선생에 대하여 아시게 된 수령님께서는 그를 늘 마음속에 새겨두시였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교원들과 애

고 숭고한 사랑의 세계속에는 남조선의 평범한 변호사였던 리종갑선생의 자녀들에게 배풀어주신 전설같은 이야기가 있다.

조선소년단창립 68돐을 맞이하면서 아직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연을 전한다.

국청년들의 투쟁을 높이 평가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김일성종합대학을 건설하는것은 북한부청년들만 공부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시며 그들의 입학을 승인하는 문건과 자신의 명의로 된 심입장을 안겨주시는 배려를 들려주시였다. 그러시고는 러비와 함께 두명의 대표들을 위해 특별렬차까지 편성해주시였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리종갑선생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김일성장군 만세!》를 목청껏 웨치였다.

그리고 세 자식들을 앉혀놓고는 《너희들이 살길은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기는것이다. 장군님의 품에서만이 너희같은 어린이들이 배움의 꿈을 실현할수 있다.》라고 절절히 이야기해주곤 하였다.

절세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애복으로 늘 가슴불래우며 투쟁의 길을 이어가던 리종갑선생은 주제37(1948)년 4월 남북련석회의가 열리다는 소식에 접하여 지체없이 북행길에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북련석회의에 참가한 리종갑선생을 친히 만나주시였다.

그 자리에서 리종갑선생은 《장군님, 전 장군님가까이에서 일하고싶습니다.》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소원을 헤아려 중앙간부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시고 졸업후에는 사법성 부상으로 임명해주시였다.

이것을 알게 된 리승만괴뢰도당은 《서북청년단》장패들을 내몰아 그의 가족을 체포하여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으며 그 어혈로 선생의 안해는 목숨을 잃고 세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 거리를 방랑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게 된것은 그 이후였다.

리종갑선생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밤을 지새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종강동무에게는 어머니없이 사는 세 자식들이 있다고, 그들이 지금 밤이나 제대로 먹는지라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그리시면서 우리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종강동무의 마음이나 오죽하겠는가고 하 남조선의 진보적인 교원들과 애

하시였다.

이렇게 되어 리종갑선생의 세 자녀들을 북으로 데려오기 위한 작전이 펼쳐지게 되었으며 구출성원들이 서울로 향하게 되였다.

그들을 구출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부청사(지금의 해방산기슭)로부터 가까운 곳에 7칸짜리 살림집까지 미리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서울에 도착한 구출조성원들은 그에 대한 전후사연을 전해듣고나서는 《장군님…》하고 목욕에 부르며 더 말을 잊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리였다.

세 자식들을 품에 꼭 껴안은 선생은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종갑이는 한생을 장군님의 전사로 살겠습니다.》라고 굳게 맹세하시였다.

자기앞에 뜻밖에 나타난 세 자식들을 보고 깜짝 놀란 리종갑선생은 그에 대한 전후사연을 전해듣고나서는 《장군님…》하고 목욕에 부르며 더 말을 잊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리였다.

세 자식들을 품에 꼭 껴안은 선생은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종갑이는 한생을 장군님의 전사로 살겠습니다.》라고 굳게 맹세하시였다.

그들이 세 집에서 살림을 편지얼 마 되 지 않은 어느 날,

## 《이것은 혁명의 계승에 관한 문제요》

해방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에서 전쟁의 위험을 막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인내성있게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은 주제39(1950)년 6월 25일 새벽, 불의에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개시하였다.

영웅한 우리 인민군인들은 신속히 반공격으로 넘어가 6월 28일 적의 아성인 서울을 해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해방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일군들을 파견하시였다.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남조선의 신해방지역에 나간 리종갑선생은 서울을 비롯한 여러곳에 재관소를 내오기 위한 사업에 달려붙었다.

재관소들을 조직한 리종갑선생은 인민참정원들을 발동하여 적대계급의 준동을 진압하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나갔다.

대오의 앞장에서 적들과의 투쟁을 이끌어가던 리종갑선생은 주제40(1951)년 10월 31일 원수들에게 희생되게 되였다.

리종갑선생의 최후를 보고받은

한 일 군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보내주시것이 라면서 두개의 구락을 가져왔다. 어머님께서는 래일이면 서울에서 온 리종갑선생의 아이들이 학교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야 하겠는데 집에는 너자의 손이 없으니 누가 아이들의 옷을 손질하여 학교에 보내겠는가고 하시며 친히 꼼꼼 다림질까지 하신 새옷들을 보내주셨던것이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구력안에는 리종갑선생의 양복과 함께 막내아들의 구두까지 들어있었다. 그 구두는 어머님께서 어리신 장군님을 위해 친히 마련하셨던것이였다.

다음날 김정숙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시 새 교복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리종갑선생의 세 자녀들은 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유치원생인 막내아들은 어리신 장군님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리종갑선생의 막내아들을 친형제처럼 따듯이 대해주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칠판에 《우리 나라》라고 골मे 쓰시고 한자한자 우리 글을 익혀주시고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렇듯 백두산3대장군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리종갑선생의 자녀들은 온갖 복을 다 누리며 희망의 나래를 활짝 폈고있다.

리종갑선생의 막내아들을 친형제처럼 따듯이 대해주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칠판에 《우리 나라》라고 골메 쓰시고 한자한자 우리 글을 익혀주시고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렇듯 백두산3대장군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리종갑선생의 자녀들은 온갖 복을 다 누리며 희망의 나래를 활짝 폈고있다.

한 일 군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보내주시것이 라면서 두개의 구락을 가져왔다. 어머님께서는 래일이면 서울에서 온 리종갑선생의 아이들이 학교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야 하겠는데 집에는 너자의 손이 없으니 누가 아이들의 옷을 손질하여 학교에 보내겠는가고 하시며 친히 꼼꼼 다림질까지 하신 새옷들을 보내주셨던것이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구력안에는 리종갑선생의 양복과 함께 막내아들의 구두까지 들어있었다. 그 구두는 어머님께서 어리신 장군님을 위해 친히 마련하셨던것이였다.

다음날 김정숙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시 새 교복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리종갑선생의 세 자녀들은 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유치원생인 막내아들은 어리신 장군님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리종갑선생의 막내아들을 친형제처럼 따듯이 대해주신 어리신 장군님께서는 칠판에 《우리 나라》라고 골메 쓰시고 한자한자 우리 글을 익혀주시고 미래의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렇듯 백두산3대장군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리종갑선생의 자녀들은 온갖 복을 다 누리며 희망의 나래를 활짝 폈고있다.

한 일 군이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께서 보내주시것이 라면서 두개의 구락을 가져왔다. 어머님께서는 래일이면 서울에서 온 리종갑선생의 아이들이 학교에도 가고 유치원에도 가야 하겠는데 집에는 너자의 손이 없으니 누가 아이들의 옷을 손질하여 학교에 보내겠는가고 하시며 친히 꼼꼼 다림질까지 하신 새옷들을 보내주셨던것이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구력안에는 리종갑선생의 양복과 함께 막내아들의 구두까지 들어있었다. 그 구두는 어머님께서 어리신 장군님을 위해 친히 마련하셨던것이였다.

다음날 김정숙어머님께서 마련해주시 새 교복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리종갑선생의 세 자녀들은 학교와 유치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유치원생인 막내아들은 어리신 장군님과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높은신 뜻과 정에 떠받들려 인류전쟁사, 세계정치사에 료래없는 내각결정이 채택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358호

《고 리종갑동지의 유가족을 보호함에 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은 사법성 부상이던 고 리종갑동지가 조국의 자유와 통일독립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다가 전사한데 대하여 그의 유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  
2. 고 리종갑동지의 유가족에게 일시적보조금 30 000원을 급여하며 그 미성년자녀들에게 최종

## 《우리가 그 고통을 지워주어야 하오》

가렬한 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41(1952)년 6월 어느날이었다.

우리가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것도 후대들을 위해서라고 하시며 미래사랑의 세력사를 펼쳐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평안북도의 어느 한 군에 소개되어있던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어떤 원아들은 수령님의 손목을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굴렀고 또 어떤 원아들은 들쭉을 한아름 묶어그이께 올리였다.

《너희들이 보고싶어서 왔다.》고 하시며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신 수령님께서는 나어린 원아들을 자신의 곁에 앉히시고 그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한 원아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득 《내가 리종갑의 딸 경숙이로구나. 틀림없어. 자, 어디 한번 더 보자.》라고 하시며 못내 반가워하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 그의 어깨를 정정게 쓰다듬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잘 씨웠다. 아버지가 법률에서 아주 재능이 있었지. 해방전에 법률공부를 하였지만 랑심적인 법률가였다.》라고 리종갑선생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순간 《아버지!》하고 걱정을 터치며 경숙은 수령님의 품에 일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어때껏 부모들의 애뜻한 정과 사랑을 모르고 살아온 그였다.

동행한 일군들과 학원의 선생들을 그들 만류하려 하자 수령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실컷 울게 놔두시오, 언제 한번 아버지앞에서 마음놓고 울어봤겠소, 부모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보조금을 매월 1인당 1 000원씩 지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 성

1951년 11월 8일》

전쟁의 불구름과 총포성을 뚫고 온 우주로 메아리쳐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 358호》.

정녕 그것은 누구도 따르지 못할 숭고한 미래판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 내놓으실수 있는 후대사랑의 결정서였다.

이렇게 되어 전시조건에서 한 유가족의 자녀들이 매월 1인당 1 000원씩 국가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공부하는 전설같은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던것이다.

## 《우리가 그 고통을 지워주어야 하오》

가렬한 전쟁이 한창이던 주제 41(1952)년 6월 어느날이었다. 우리가 전쟁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있는것도 후대들을 위해서라고 하시며 미래사랑의 세력사를 펼쳐가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평안북도의 어느 한 군에 소개되어있던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였다.

어떤 원아들은 수령님의 손목을 부여잡고 발을 동동 굴렀고 또 어떤 원아들은 들쭉을 한아름 묶어그이께 올리였다.

《너희들이 보고싶어서 왔다.》고 하시며 원아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시신 수령님께서는 나어린 원아들을 자신의 곁에 앉히시고 그들과 허물없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한 원아에게 이름과 나이를 물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문득 《내가 리종갑의 딸 경숙이로구나. 틀림없어. 자, 어디 한번 더 보자.》라고 하시며 못내 반가워하시였다. 깊은 생각에 잠겨 그의 어깨를 정정게 쓰다듬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잘 씨웠다. 아버지가 법률에서 아주 재능이 있었지. 해방전에 법률공부를 하였지만 랑심적인 법률가였다.》라고 리종갑선생을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

순간 《아버지!》하고 걱정을 터치며 경숙은 수령님의 품에 일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어때껏 부모들의 애뜻한 정과 사랑을 모르고 살아온 그였다. 동행한 일군들과 학원의 선생들을 그들 만류하려 하자 수령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실컷 울게 놔두시오, 언제 한번 아버지앞에서 마음놓고 울어봤겠소, 부모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보조금을 매월 1인당 1 000원씩 지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김일 성 1951년 11월 8일》

전쟁의 불구름과 총포성을 뚫고 온 우주로 메아리쳐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 358호》.

정녕 그것은 누구도 따르지 못할 숭고한 미래판을 지니신 우리 수령님께서만 내놓으실수 있는 후대사랑의 결정서였다.

이렇게 되어 전시조건에서 한 유가족의 자녀들이 매월 1인당 1 000원씩 국가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공부하는 전설같은 화폭이 펼쳐지게 되었던것이다.

시켰다.

만경대혁명학원창립 60돐에도 그를 잊지 않고서 기념행사에 참가하도록 해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 공헌한 리종갑선생의 위훈을 후세에 길이 빛내여주시기 위해 그를 조국통일상수상자로 내세워 영생의 언덕에 세워주시였다.

평범한 법률가에 지나지 않던 리종갑선생과 그 자녀들에게 배풀어주신 백두산3대장군의 전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온 겨레에게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절세의 위인들의 품에서만 인간의 참된 삶을 누릴수 있고 조국의 미래가 꽃피날수 있다는 참다운 진리를 새겨주고있다.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후대판, 파사로운 미래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져 찬란히 개화만발하고있다.

6.6절은 조선소년단의 명절인 동시에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의 소중한 명절이라고 하시며 조국통사에 없었던 대규모의 창립절 기념행사를 마련해주시고 소년단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신 경애하는 원수님.

소년단원들을 억만금의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귀중한 보배, 희망과 미래의 전부로 내세워주시며 경치좋은 명당자리마다에 어린이들을 위한 학교와 병원, 궁전과 야영소를 훌륭히 일떠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과 뜨거운 사랑에 의해 우리 어린이들은 선군조선을 빛내일 기둥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호텔로 꾸려 소년단원들에게 안겨주시는 송도원군제소년단야영소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낸 리종갑선생의 증손자는 자기의 행복상을 이렇게 노래했다.

동무들 저마다 자기 집 자랑을 할 때면  
나는야 말해요  
백두산3대장군의 뜨거운 정 우리 집에 깃들여있어

…

대원원수들 사랑 오늘은 원수님 이어주셔요

온 나라 가정에 파사로이 비쳐요

아, 원수님 계시여 선군동이 우리 앞길엔

밝고밝은 미래만 약속되어있어요

배원

## 시야 영 소 의 밤

김 송 립

수정같이 반짝이는 아이들 눈빛인가

창가마다 흐르는 눈부신 불빛

밤은 소리없이 깊어만가도

꺼질줄 모르누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불빛은

온종일 수영장이 춤다하게 리치던

그 기쁨의 물보라

불밝은 이 창가에도 뿌려지는가

승부없이 끝난 축구경기

그대로는 잠을 이룰수없어 웃놀이판 펼

쳤는가

밤을 잊은 송도원의 밤

매일은 또 어떤 재미난 시간인

우리의 웃음집 흔들여줄가

저저마다 동화처럼 그려보는 밤

신나는 노래도 다같이 불러보며

잠 못드는 파도처럼 잠 못드는 아이들

어찌 잠들수 있으랴

수족관의 꼬리치는 물고기를

아직도 마음속에 은물결 일으키고

백사장의 하얀 모래불은

지금도 아이들 발밑을 간지럽히는데…

정말 부럽구나

세상에 돌도 없는

희한한 《궁전》의 《왕》이 되고

만복을 다 독차지한듯

으시대며 활개치는 너희 행동동들이

아느냐 다 아느냐

기쁨에 잠 못드는 송도원의 이 밤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펼쳐지게 되었는지

황홀한 이 궁전 세워주시려

원수님 지새우신 밤 그 얼마였던지

내 조국의 밝은 미래위해

그리도 마음 많이 쓰시며

밤을 지새우신 아버지원수님이시란다

원수님의 잠 못드신 그 헌신의 밤이 있어

너희들 기쁨에 잠 못드는 이 밤이 있단다

아, 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시여

부림없는 세상의 만복을 다 주시는

아버지원수님

그 사랑의 빛발이 있어

아이들아, 너희들의 앞날엔 어둠이 없

어라

언제나 밝고 창창한것이여라

사랑의 밤 행복의 밤

원수님의 축복속에 아름다운 꿈을 싣고

이 나라의 밝은 미래 불빛에 담아싣고

잠들줄 모르는 야영소의 밤이여

밤은 깊어가도 밤을 모르는

송도원의 밤이여!

과학자거리, 새로운 이름

은 아니지만 무심히 부를수

없는 이름이다.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

자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어제는 통성지구에 은하과학자거리가 솟아나더니 오늘은 온정지구에 위성과학자거리가 일떠서고 매일은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미래과학자거리가 세워지게 된다.

얼마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금

건설하고있는 살림집을 축

으로 대동강변에 김책공업

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500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

도 꾸러주게 되면 우리군

하나의 거리가 형성될것이라

고 하시면서 새로 일떠서

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

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시

였다. 과학자들을 금싸

래기같이 귀중히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과학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

나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조국땅우에 현대적인 새 거

리가 일떠선다는 소식만으로

도 가슴벅차다. 그러나 거기

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다름

아닌 과학자들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더욱 뿌듯해진다.

과학자거리가 련이어 일떠

서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나

니 은하과학자거리에서 만났

던 한 해외동포학자의 말이

떠오른다.

나의 아버지는 해방전 일

## 과학자거리에 대한 생각

지인테리의 불우한 처지를

속명처럼 감수하며 피눈물

을 삼켜야 했다. 그러나 해

방후 조국의 품에 안겨서야

민족을 위한 애국의 길에서

과학으로 참다운 삶을 빛내

일수 있었다. …

창으로 많은것을 생각하게